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2권 제4호(통권 제88호, 2011 · 겨울호)

청소년비행에서 개인성향요인과 사회학습요인들의 조건적 효과 : 두 이론의 검증

이 성 식*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기존 청소년비행 연구에서 각광을 받아 온 일반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보완적 논의로 그 주요 요인인 개인성향요인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비행에의 영향이 사회학습요인들에 의해 조건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이 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친비행적 사회학습환경에 있을 때 그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을 시도한다. 이에 일반이론에서의 개인성향인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들로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 비행태도, 차별강화 각각의 독립적인 효과와 아울러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다. 서울시 남녀 중학생 715명을 조사한 연구결과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으로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태도는 비행에 각각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외에 본 연구에서의 예측대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 그리고 비행태도 간에는 각각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비행친구와 어울리거나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 비행을 더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학습요인 중 차별강화요인들은 독립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 낮은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들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어 본 연구의 조건적 논의를 어느 정도 지지했다.

❖ 주제어 : 청소년비행, 일반이론, 사회학습이론, 개인성향, 낮은 자기통제력, 조건적 효과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I. 서론

그동안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 중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제시한 일반이론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비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으로, 실제로 일반이론에서 제시하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개인성향요인의 설명력은 상당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Pratt and Cullen, 2000; 민수홍, 2006). 그런데 일반이론은 청소년비행을 설명함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이라는 개인의 성향에 주목함으로써 사회환경적 요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어릴 때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양육에 의해 자기통제력이 형성된다고 본 점에서는 일반이론이 사회환경적 요인을 경시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려서 형성된 자기통제력이라는 안정된 개인성향이 이후 시기의 성장하면서의 청소년의 비행이나 성인의 범죄의 주된 원인이라는 논의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그 대표적인 논의로 발전이론가들은 어릴 때 형성된 성향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의 여러 환경적 변화가 비행의 발달에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Loeber and LeBlanc, 1990; Sampson and Laub, 1993). 발전이론은 주로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에 기반한 이론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주위 사람이나 환경기제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이후 일반이론과 발전이론간에는 많은 논문들에 의해 논쟁이 있어 왔다. 즉 비행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의 개인성향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회환경요인이 중요한지에 관한 경험연구들의 논쟁이 그것이다(Evans et al., 1997; Paternoster and Brame, 1997).

이 논문은 일반이론과 발전이론간에 논쟁을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개인성향요인을 중시하는 일반이론과 사회환경요인을 강조하는 대표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두 이론의 조건적 논의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즉 이 연구에서는 개인성향과 사회환경요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단순히 독립효과로서가 아니라 두 이론의 요인들은 비행발생에 함께 필요충분 조건적으로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가 자라면서 비행환경에 노출될 때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낮은 자기통제력만으로 혹은 사회환경적 요인만으로는 비행설명에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개인

성향과 환경요인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그 이론적 기초로 일반이론과 더불어 사회학습이론을 함께 다루려고 한다. 그것은 사회학습이론이 사회환경적 요인을 다루는 대표적 이론이면서 아울러 차별접촉이론 및 여러 이론들을 통합하는 이론이기 때문이고 사회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그동안의 연구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사회학습요인이 비행설명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이다(Akers, 1977; Chapple, 2005; 황성현, 2006). 즉 이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가 그 성향만으로는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는 볼 수 없으며 친비행적 비행학습의 환경에 접할 때 비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일반이론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 및 사회학습이론의 논의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결과들의 검토를 통해 낮은 자기통제력의 개인성향과 사회학습요인들과의 조건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설을 구성해 그것을 경험연구로 검증해 보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일반이론과 개인성향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은 대표적 통합이론이다. 일반이론은 범죄학의 두 학파인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학파를 통합하려 했다. 고전주의 학파로부터는 범죄가 즉각적으로 순간적이며 우연히 발생한다는 점을, 그리고 실증주의 학파로부터는 정상인과 구별되는 범죄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일반이론은 두 학파를 통합하면서, 대부분의 비행이나 범죄가 즉각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범죄자와 정상인을 구분하는 특성이 순간만족과 충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내적 성향 차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통제력이라고 했다. 자기통제력은 순간만족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기보다는 분별력과 조심성이 있는지, 근시안적이기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는지, 쉽게 흥분하는 성격인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비행과 범죄를 더 저지른다고 보고 그것이 주요

원인이자 설명요인이라고 했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그러한 내적 개인성향이 어릴 때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즉 그것은 어릴 때 부모의 양육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부모로부터 감독이 소홀하거나 애정 결핍 속에, 무계획적 생활습관이 방치되고, 잘못된 행동에 제재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내적 통제력이 낮아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성향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지속적이고도 안정된 성향이라고 보았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낮은 자기통제력이라는 내적 성향이 비행의 유일한 설명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통제이론이나 차별접촉이론에서 강조되었던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을 부정했다. 즉 자기통제력을 통제할 경우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위관계가 된다고 주장했으며, 사회유대의 약화, 비행친구와의 접촉, 비행은 모두 어릴 때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라는 공통된 성향원인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한 연유로 비행대책도 어려서의 자기통제력의 형성을 강조했고, 그 성향은 한번 형성된 이후 안정적이라 보았기 때문에 낮은 자기통제력의 교정교화가 어렵다고 보았고, 따라서 어려서의 조기 예방적 측면을 주장했다.

일반이론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비행이나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이 제시되어 왔다(Grasmick et al., 1993; Gibbs and Giever, 1995; 민수홍, 2006). 또한 다른 이론들과의 경쟁에서 자기통제력은 사회유대, 비행친구 요인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비행과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Nagin and Paternoster, 1993; Evans et al., 1997). 그러나 이후 연구결과들을 보면 자기통제력이외에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 모두가 비행에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가 어릴 때 형성된 성향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Paternoster and Brame, 1997; Baron, 2003; Chapple, 2005), 심지어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만을 갖는다는 연구가 제시되기도 했다(Longshore et al., 2004; 이성식, 2007).

2. 낮은 자기통제력의 조건적 효과에 대한 초기 논의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비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개인성향요인만을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한 점에서 이후 학자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아울러 강조하는 통합론적이면서도 조건적 논의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아마도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일반이론과 비행기회이론의 통합적 논의를 들 수 있다(Longshore, 1998; LaGrange and Silverman, 1999; Hay and Forrest, 2008). 이 논의에서는 비행발생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비행기회의 여건이 더불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즉 낮은 자기통제력은 우연한 비행기회의 상황이나 여건에서 비행을 더 잘 설명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즉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작용한다는 주장은 우발적 우연의 비행상황에서(예컨대 상대방의 말다툼의 갈등상황이나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돈다발을 발견하는 경우 등) 그 충동을 절제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강조한 것으로 그러한 비행기회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비행기회란 비행으로 얻게 되는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이득과 만족, 비행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여건, 비행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낮은 위험성 등을 말한다(Smith, 2004).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논의라기보다는 Gottfredson과 Hirschi가 이미 그의 저서에서 주장한 것으로(1990, pp. 22-24), 그들이 실증주의와 고전주의 논의를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개인성향이외에 고전주의 학파의 대표적 이론으로 꼽히는 일상행위이론(Cohen and Felson, 1979)의 논의를 통합하려했고, 그러한 점에서 비행설명에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었다. 초기 학자들은 Gottfredson과 Hirschi의 논의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에만 주목했지만 이후 2000년대 들어 최근 논의들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외에 비행기회요인들의 영향력을 함께 다루기 시작했다(Longshore, 1998; Longshore and Turner, 1998; LaGrange and Silverman, 1999; Smith, 2004; Hay and Forrest, 2008; 이성식, 2010).

이러한 최근의 시도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이라는 개인성향만을 중시한 초창기 일반이론의 검증들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비행기회의 개념이 명확히 제

시되지 못했고 비행기회를 다룸에 있어서 다른 이론의 논의를 포함함으로써 다른 이론들과 구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서는 비행기회를 객관적이고도 우연한 상황과 기회보다는 단순히 개인이 인지한 비행기회를 다루었고(Grasmick et al., 1993; Longshore, 1998), Hirschi(1969)가 사회통제이론에서 주요인으로 다루었던 부모의 감독부족이나 또한 차별접촉이론에서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또 다른 비행기회요인으로 다룸으로써(LaGrange and Silverman, 1999; Hay and Forrest, 2008) 순수하게 비행기회를 다루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이처럼 기존 경험연구와 논의에서는 이론적으로도 혼란이 있었고, 아울러 그 논의가 대체로 볼 때 경험적으로 크게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3.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회학습요인들에 의한 조건적 효과

이렇듯 초기 논의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비행기회와 함께 다룸으로써 낮은 자기통제력의 조건적 작용에 관심을 가졌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이미 Gottfredson과 Hirschi가 일반이론에서 주장한 것으로 새로운 논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혼란이 있었고 포괄적이지 못하며, 그 경험지지도 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여기서는 새로운 논의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사회학습요인들과 같은 사회환경요인들에 의해 조건적일 것이라는 것을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청소년비행을 다룸에 있어서는 개인의 성향과 비행기회요인이외에 무엇보다도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환경적 요인들은 비행에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학습이론은 기존의 비행설명에서 사회환경요인을 다루는 대표적 이론이면서도 가장 포괄적이고도 크게 지지를 받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조건적 논의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비행이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는 일반적 명제로부터 Akers(1977)가 네 가지 개념을 구성하였는데, 차별접촉, 정의(태도), 차별강화, 그리고 모방이 그것이다. 즉 비행친구와 같은 친비행적 사람과 접촉하고, 그들로부터 친비행적 정의나 태도를 학습하며, 비행으로 결과될 보상이 크고 그로

부터의 비용과 손실은 적으며, 실제로 비행을 저지른 사람을 관찰한 후 유사하게 행동하는 경우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전까지의 비행연구에서 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서 사회학습이론의 대표적 요인이며, 낮은 자기통제력보다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Paternoster and Brame, 1997; Longshore et al., 2004; Chapple, 2005; 황성현, 2006; 이성식, 2007).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비행친구이외에 정의와 태도요인을 다룸으로써 차별접촉이론(Sutherland, 1947)의 정의와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의 도덕적 신념을 모두 다루고 있고, 사회통제이론에서의 사회유대 및 합리적 선택이론의 요소와도 유사한 성격을 갖는 차별강화요소, 그리고 차별동일시이론(Glaser, 1956)의 모방학습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요인들을 다루며 그러한 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를 통합하려 했던 기존의 논의보다 더 포괄적이고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들은 사회환경적으로 비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서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친비행적 사회환경을 설명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사회학습이론에서 보면 비행친구와 접촉하고 비행에 호의적 정의와 태도를 가지며, 비행으로부터 얻는 차별강화적 요소가 높고, 주위로부터 모방할 경우 비행을 더 저지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학습환경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행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최근까지 연구들은 그러한 조건적 작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이 비행친구를 사귀지 않을 경우는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한 아이들이 비행친구와 접촉할 경우 비행을 더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Longshore and Turner, 1998; LaGrange and Silverman, 1999; Wright et al., 1999). 최근 Meldrum과 동료들의 연구(2009)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작용에 있어 비행친구와 조건적 효과를 갖는지를 횡단적 자료와 종단적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비록 횡단적 자료에서는 그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종단적 자료에서는 조건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비행친구와 사귈 때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아울러 Schoepfer와 Piquero(2006)

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태도를 갖는 경우는 범죄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못한 도덕적 태도가 낮고 친비행가치를 갖는 경우 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그러한 주장은 최근의 연구(Svensson et al., 2010)에서도 지지되는데, 이는 일반이론의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회학습이론의 정의(태도)에 따라 조건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Higgins와 동료들의 청소년들의 해적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연구(2007)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사회학습요인들에 따라 조건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했고, 국내에서 이성식의 온라인 불법다운로드에 관한 연구(2011)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회학습요인들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져 조건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III. 연구가설과 방법

1. 연구가설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 일반이론에서 제시한 낮은 자기통제력의 개인성향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 그것이 사회환경요인으로 사회학습요인들과 독립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사회학습이론의 요인들에 따라 조건적일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듯 이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비행에의 작용에 있어 사회학습이론에서의 차별접촉, 비행에 대한 정의(혹은 태도), 그리고 차별강화요인과의 조건적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즉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비행학습의 사회환경적 영향에 노출될 때 비행을 더 저지르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낮은 자기통제력과 차별접촉, 비행정의 및 태도, 그리고 차별강화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차별접촉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정의와 태도는 비행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 태도를 갖는지를, 그리고 차별강화의 경우는 비행으로부터 얻는 보상과 비행으로 결과될 손실로서의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비공식손실과 공식처벌의 위험성을 다루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Akers가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네 개념 중 모방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1: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비행을 더 할 것이다.
가설 2-1: 비행친구와 접촉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더 할 것이다.
가설 2-2: 비행에 호의적 태도를 갖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더 할 것이다.
가설 2-3: 비행으로 보상이 클 때 비행을 더 할 것이다.
가설 2-4: 비행으로 결과될 주위 사람과의 손실이 적을 때 비행을 더 할 것이다.
가설 2-5: 비행으로 공식처벌의 위험이 적을 때 비행을 더 할 것이다.

위에서 가설 1은 일반이론에서의 가설이고, 가설 2-1부터 2-5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가설로 각 요인들은 독립적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독립효과가설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조건적 효과의 가설은 다음의 3-1에서부터 3-5까지 제시되는데, 즉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접촉, 비행태도, 그리고 차별강화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가설 3-1: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비행친구와 접촉할 때 비행을 더 할 것이다.
가설 3-2: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비행에 호의적 태도를 가질 때 비행을 더 할 것이다.
가설 3-3: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비행으로 보상이 클 때 비행을 더 할 것이다.
가설 3-4: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주위 사람과의 손실이 적을 때 비행을 더 할 것이다.
가설 3-5: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공식처벌손실이 적을 때 비행을 더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배경변인으로 성과 연령을 통제요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측정

가. 낮은 자기통제력

이 연구에서 다룰 주요 요인들에 대한 측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 독립변인으로 일반이론의 낮은 자기통제력은 Grasmick과 동료들의 연구(1993)에 따라 충동성, 단순작업성, 위험추구성, 육체성, 이기성, 화기질 등 여섯 가지 특성에 대해 각 두 문항씩 총 열두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등의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45).

나. 사회학습요인들

사회학습이론의 요인으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항목들을 제시하고 “당신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를 질문하여 사용하였다. 비행태도는 비행항목들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행동들은 나쁘지 않다”의 한 문항을 사용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차별강화요인으로 비행으로부터의 보상은 주로 심적 보상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는데 비행항목들을 제시하고 “위의 행동은 재미있을 것 같다”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비행으로 결과될 주위의 부정적 반응 혹은 손실은 비행항목들 제시한 후 “내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아시면 나에게 실망하실까봐 망설이게 된다”, “내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아시면 나에게 실망하실까봐 망설이게 된다”, “내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면 나에게 실망할까봐 망설이게 된다”, “내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내 주위 사람들이 안다면 나에게 실망할까봐 망설이게 된다”의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alpha=.977). 아울러 비행으로부터 공식처벌의 위험손실은 “위의 비행을 하게 된다면 경찰에 발각되고 처벌받을 것 같다”의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했다.

다. 청소년비행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인으로 비행은 열 항목의 문항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흡연, 음주, 미성년자 출입불가장소의 출입, 절도, 강도, 폭행, 성희롱, 강간, 성관계, 약물사용 등의 경험여부를 질문하여 '없다', '1회', '2-3회', '4-10회', '11회 이상에 해당되는 응답에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코딩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들 열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재학중인 남녀 중학생이다. 이전 비행연구는 주로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연령이 다소 저연령화되고 또한 여자청소년의 비행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일곱개 중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1,2,3학년 한 학급씩을 선정하기로 하며, 선정된 학급에서 학급학생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08년도 7월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718개의 설문을 회수하였는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71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된다. 우선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364명(50.9%), 여자는 336명(47.0%)으로 남자가 다소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2세-16세의 범위에서 평균연령은 13.881세였다. 일반이론의 주 독립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12-60범위에서 평균이 33.332로 자기통제력은 다소 높은 편으로 제시되었다. 사회학습이론의 변인으로 비행친구수는 0-50범위에서 평균이 1.342,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는 1-5범위에서 1.693으로 비행친구수나 비행에 호의적 태도의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으로 얻는 보상으로 재미는 1-5범위에서 1.828로 낮았고, 비행

으로 결과될 주위 사람과의 손실은 4-20범위에서 15.322로 높았지만, 비행으로 처벌의 위험성 손실은 1-5범위에서 2.167로 중간점수보다 낮았다. 종속변인으로 비행은 0-21범위에서 평균점수가 1.576으로 낮았다.

〈표 1〉 주요 요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 남성	364	50.9			
여성	336	47.0			
연령			13.881	.962	12-16
낮은자기통제력			33.332	8.907	12-60
비행친구			1.342	4.076	0-50
비행태도			1.693	.899	1-5
비행보상			1.828	1.027	1-5
비행주위손실			15.322	4.856	4-20
비행처벌손실			2.167	1.150	1-5
비행			1.576	2.756	0-21

<표 2>는 본 연구의 가설로서 일반이론의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이론의 비행친구접촉, 비행태도, 비행으로 얻는 보상, 비행으로 결과될 손실로서 주위 사람과의 손실과 처벌손실을 포함한 변인들의 독립효과를 알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성과 연령을 포함한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R제곱에서 보듯이 비행의 26.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이론의 낮은 자기통제력이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여 가설 1을 지지했다. 또한 사회학습이론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p<.001$수준에서 그리고 비행태도가 $p<.001$수준에서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과 가설 2-2가 지지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차별강화요인으로 비행으로부터의 보상이나 손실요인들은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2-3부터 가설 2-5까지는 지지되지 못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보면 독립변인들 중에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베타값이 .387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태도 순이었다.

〈표 2〉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들의 독립효과를 위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	
	b	β
남성	-.546	-.024
연령	-.141	-.048
낮은자기통제력	.062***	.193
비행친구	.276***	.387
비행태도	.472***	.149
비행보상	-.001	-.001
비행주위손실	-.034	-.058
비행처벌손실	-.037	-.015
R 제곱	.266	
F값	27.091***	

*p<.05; **p<.01; ***p<.001

<표 3>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가설검증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의 비행에 대한 영향에서 사회학습요인들에 의한 조건적 효과의 논의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를 보면 앞서 <표 2>에서와 같이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와의 접촉, 비행태도의 독립효과이외에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각각 정(+)적으로 유의미하여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이 비행친구와 어울리거나 혹은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비행을 더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해 가설 3-1과 가설 3-2를 지지했다. 특히 자기통제력과 비행태도와의 상호작용효과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여 가설 3-2가 크게 지지되었다. 하지만 낮은 자기통제력과 차별강화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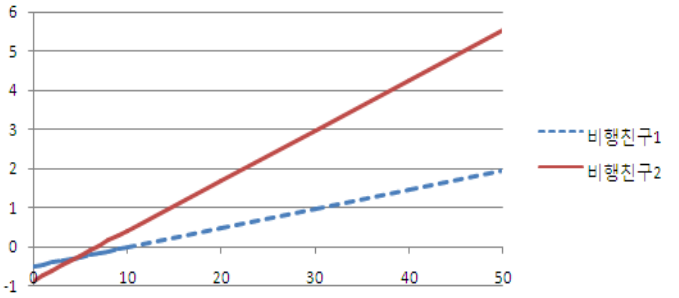
〈표 3〉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위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	
	b	β
남성	-.544	-.024
연령	-.137	-.047
낮은자기통제력	.057***	.176
비행친구	.260***	.364
비행태도	.513***	.163
비행보상	-.006	-.002
비행주위손실	-.037	-.064
비행처벌손실	-.045	-.018
낮은자기통제력*비행친구	.009*	.094
낮은자기통제력*비행태도	.049***	.155
낮은자기통제력*비행보상	.012	.035
낮은자기통제력*주위손실	.003	.055
낮은자기통제력*처벌손실	-.014	-.045
R 제곱	.302	
F값	19.693***	

*p<.05; **p<.01; ***p<.001

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각각의 비행친구접촉, 비행태도, 비행보상, 비행주위손실 및 비행처벌손실의 사회학습요인들을 평균을 중심으로 하(=1) 상(=2)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에서부터 <그림 5>에서와 같다. 그 결과를 보면 비행친구가 적은 집단에서보다 많은 집단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과의 관계가 더 더욱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비행에 대해 용인하는 집단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과의 관계가 더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차별강화요인들에 따른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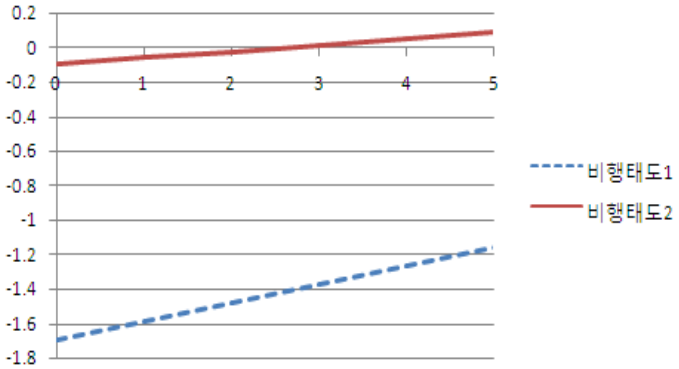
〈그림 1〉 비행친구에 따른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과의 관계



비행친구=1 y= -.508+.049x

비행친구=2 y= -.868+.128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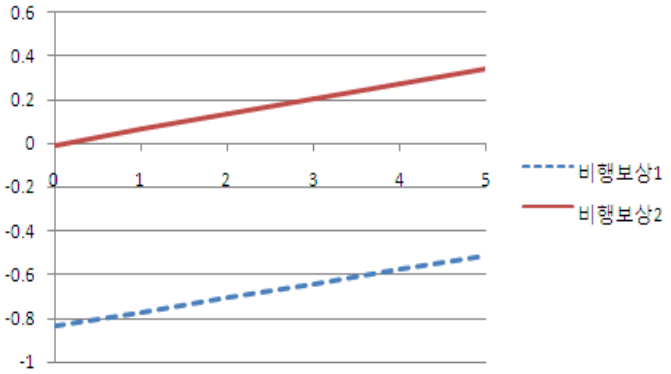
〈그림 2〉 비행태도에 따른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과의 관계



비행태도=1 y= -.098+.038x

비행태도=2 y= -1.695+.108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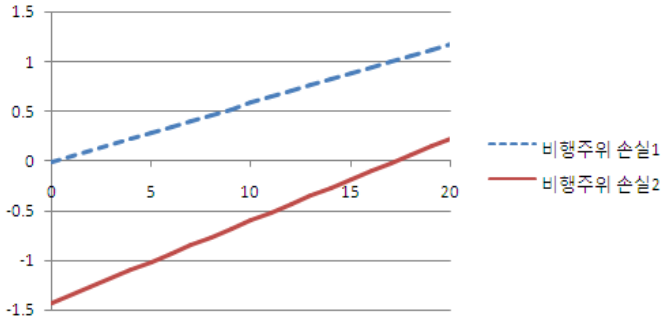
〈그림 3〉 비행보상에 따른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과의 관계



비행보상=1 y= -.837+.065x

비행보상=2 y= -.007+.070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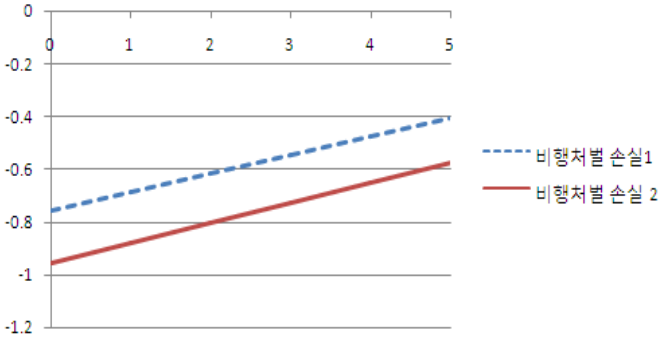
〈그림 4〉 비행주위손실에 따른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과의 관계



비행주위손실=1 y= -.018+.060x

비행주위손실=2 y= -1.431+.083x

〈그림 5〉 비행처벌손실에 따른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과의 관계



비행처벌손실=1 y= -.759+.071x

비행처벌손실=2 y= -.953+.075x

V.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설명에서 그동안 가장 지지를 받아왔던 대표적인 이론으로 일반이론이 낮은 자기통제력이라는 개인성향요인만을 강조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의 일환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회학습이론의 요인들과 함께 비행에 조건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통해 낮은 자기통제력의 비행에의 작용에 있어 사회학습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했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아울러 사회학습이론의 요인 중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과 비행태도가 각각 비행에 독립적인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그 외에도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친구와의 접촉 및 비행태도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조건적 효과의 가설을 대체로 지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특히나 비행에 대한 태도와 높은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최근의 외국연구들의 결과(Schoepfer and Piquero, 2006; Svensson et al., 2010)에서와

유사하며, 즉 낮은 자기통제력의 성향의 청소년들이 도덕적 태도가 낮거나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비행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자기통제력만이 낮다고 해서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비행에 호의적 태도를 가질 때 비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본 연구의 예측과는 달리 차별강화요인으로서 보상과 손실요인은(비행으로 얻는 보상과 비행의 결과될 주위 사람과의 손실과 공식처벌로 인한 손실) 독립적으로도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면 기존 연구들에서 시도되어 왔던 낮은 자기통제력과 범죄기회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약했던 것과 연관된다. 왜냐하면 범죄기회이론에서 범죄기회는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범죄로 얻게 되는 이득과 손실요인 등 사회학습이론에서의 차별강화요인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인데, 기존 연구에서나 본 연구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과 이 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낮았음을 제시했다.

이 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이 통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항시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학습요인들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한해서 작동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두 이론의 요인들은 비행발생의 필요충분의 조건적 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결과는 결국 비행대처에 있어서도 여러 이론에 기반한 각각 노력이 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본다면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이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비행태도를 갖게 될 때 비행 가능성이 높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성장하면서 비행친구와 덜 사귀거나 도덕적 태도를 갖추게 될 때 비행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청소년기의 대책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즉 어려서의 자기통제력의 함양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면서의 사회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 27-47.

이성식. (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이성식(2010),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에의 영향 비교: 일반이론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1):203-233.

이성식. (2011), “청소년의 온라인 저작물 불법다운로드 행위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들의 영향 및 상호작용효과”, 청소년학연구 18(10): 123-142.

황성현. (2006), “낮은 자아통제감, 친구집단요인, 부모요인이 청소년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 129-154.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Akers, R.L. (1977),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2nd. Belmont, CA: Wadsworth.

Baron, S.W. (2003), “Self-Control, Social Consequences, and Criminal Behavior: Street Youth and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 403-425.

Chapple, C.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 89-106.

Cohen, L. and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Evans, T.D., F.T. Cullen, V.S. Burton, R.G. Dunaway, and M.L. Benson. (1997), “The Social Consequences of Self-Control: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5: 475-501.

Gibbs, J.J. and D. Giever. (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12: 231-5.

Glaser, D. (1956). "Criminal Theories and Behavioral Imag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61:433-44.

Gottfredson, M.R.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Grasmick, H.G., C.R. Tittle, R.J. Burski, and B.K. Arneklev.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Hay, C. and Forrest, W. (2008), "Self-Control Theory 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The Case for a More Systematic Union", Criminology 46(4): 1039-71.

Higgins, G., Fell, B., and Wilson, A. (2007), "Low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in Understanding Student's Intentions to Pirate Movi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5(3): 339-357.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aGrange, T.C. and Silverman, R.A. (1999), "Low Self-Control and Opprtunit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as an Explanation for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cy", Criminology 37: 41-72.

Loeber, R. and LeBlank, M. (1990), "Toward a Developmental Criminology", in M. Thorny and N. Morris(eds.), Crime and Justice Vol 1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ongshore, D. (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A Prospective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Social Problems 45: 102-113.

Longshore, D. and Turner, S. (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Cross-sectional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5: 281-98.

Longshore, D., E. Chang, S. Hsieh, and N. Messina. (2004), “Self-Control and Social Bonds: A Combined Control Perspective on Deviance”, Crime and Delinquency 50: 542-564.

Meldrum, R., Young, J., and Weerman, F. (2009), “Reconsidering the Effect of Self-Control and Delinquent Peer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6(3): 353-376.

Nagin, D.S. and R. Paternoster. (1993), “Enduring Individual Differences and Rational Choice Theories of Crime”, Law and Society Review 3: 467-96.

Paternoster, R. and R. Brame. (1997), “Multiple Routes to Delinquency? A Test of Developmental and General Theories of Crime”, Criminology 35: 49-84.

Pratt, T.C. and Cullen, F.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64.

Sampson, R.J. and J.H. Laub.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Schoepfer, A. and Piquero, A.R. (2006), “Self-Control, Moral Beliefs, and Criminal Activity”, Deviant Behavior 27: 51-71.

Smith, T. R. (2004), “Low Self-Control, Staged Opportunity, and Subsequent Fraudulent Behavio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 542-63.

Sutherland, E.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Svensson, R., Pauwels, L., and Weerman, F. (2010), “Does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Adolescent Offending vary by Level of Moralit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 732-743.

Wright, B.R., A Capsi, and P.A. Silva. (1999), “Low Self-Control, Social Bonds, and Crime: Social Causation, Social Selection, or Both?”, Criminology 37: 479-514.

A Conditioning Effect of Individual Personality and Social Learning Variables on Juvenile Delinquency: Testing Two Theories

Lee Seong-Sik*

This study tries to construct a model from both general and social learning theories, which have been supported in previous studies and test a conditioning effect of low self-control on delinquency by social learning variables. This study tests not only independent effects of low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variables such as differential association, delinquent attitude or definition, and differential reinforcement, but als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low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variables. Using data from 715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low self-control,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delinquent attitude have significant independent effects, but the effects of differential reinforcement variables are not significant.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both interaction effects between low self-control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nd between low self-control and delinquent attitude are significant, bu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low self-control and other social learning variables are not significant. In general, those results support our hypotheses. That is, low self-contro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delinquency when social learning variables are high.

❖ Key Words: Juvenile Delinquency; General Theory; Social Learning Theory; Individual Personality; Low Self-Control; Conditioning Effect

투고일 : 12월 5일 / 심사(수정)일 : 12월 21일 / 게재확정일 : 12월 21일

*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